

■ 검찰, '바다이야기' 유진룡 전 차관 출금

사행성 게임 수사 문화부 정조준하나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출국 금지
는 검찰의 수사가 문화부의 핵심 라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동안 검찰은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정·관계 연루' 부분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을 아꼈는데 이번에 유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당시 실무 국장으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다"고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또 문화부 공무원에 대한 계좌주적 압수 수색 영장이 최근 한차례 기각됐던 점까지 고려하면 검찰의 칼끝의 방향을 가늠해 한다는 해석이다.

"수사상 꼭 필요한 참고인"

◇ "유 전 차관은 일단 참고인" = 유 전 차관은 '바다이야기'로 상징되는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기된 각종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5일 "유 전 차관에게는 본인이 말한 것도 있고, 물어볼 게 많다"고 말해 수사 과정에서의 유 전 차관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해 했다.

유 전 차관은 문화부 재직 시절 직무 범위나 최근 발언에 비춰 '바다이야기' 등 각종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의문을 풀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한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의 통과를 불허하라고 영등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8일 경질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한 적이 없어

궁금증을 증폭시켜 왔다.

따라서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게임정책 주무국장인 문화산업국장으로 재임했던 그가 '바다이야기'가 심의를 통과한 2004년 12월에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심의 통과를 불허하라고 요청했는지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직원 계좌추적 영장 청구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으로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가 같은 2002년 2월 당시 문화산업국장이었던 유 전 차관의 역할도 검찰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 문화부·영등위 등 '몸통'으로 수사 확대

= 검찰은 유 전 차관과 별도로 문화부 직원들이나 영등위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최근 수뢰 의혹이 있는 문화부의 한 공무원에 대해 금융계

상품권 허가 로비 의혹도 조사

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검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을 보강해 조만간 계좌추적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상품권업계 기초조사를 통해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관련자들의 로비와 관련한 정황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정·관계' 가운데 '관(官)' 쪽에 해당하는 문화부 및 영등위 비리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도박용 칩'이나 다클없는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문화부나 영등위가 허가를 내준 데 대한 로비 ▲특정 오락기 제조업체 비호 또는 특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업체들이 무더기로 심사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외압 행사 의혹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다청문회"는 정치공세"

열린우리당, 한나라 비난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바다이야기' 파문 진상 조사를 위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면 사실상 청문회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정병국 최구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문광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행성 도박 파문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전윤철 감사원장 "보선 출마 안한다"

"현직책 국가위한 마지막 봉사 기회"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해남·진도 지역구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던 민병조 전 국민자산신탁 대표와 같은 시기에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신청했었던 체일병 전 부래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이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비공개로 신청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종신형 전제 사형제 폐지"

김종대 현재재판관 후보자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5일 사형제 폐지 문제와 관련, "종신형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는 정치지도자들이 할 문제'라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화 관련된 조항을 옹호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국보법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도 잘 받고 한다"고 거듭 소개하면서도 "국내에 돌아가면 좀 골치 아프긴 하다"며 "국내에 가면 잘 안 해준다"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괜찮다. 열심히 하고 있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여러 어려운 문제도 풀고, 밀린 숙제도 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은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는 만큼 길동도 많으니까 국내에서 시끄러운 소리 많이 들리거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요즘 대통령이 놀고 있구나' 생각하시라"면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 들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꿈·이명박·깡'

유명인사 성공키워드 설문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키워드는 '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성공키워드는 '깡'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판기획 전문집단 '서울출판정보'가 기획한 '감칠(感7)맛 전략'(이동조 지음, 동아일보사 펴냄) 출간을 기념해 최근 대학생 300명(남 194명 여

106명)을 e-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내용은 '꿈', '끼', '끈', '깡', '꼴', '꾼' 등 7글자 가운데 노 대통령과 이명박 전 시장 등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성공 키워드를 골라보라는 것.

조사 결과 노 대통령의 성공키워드는 '꿈'이라는 응답이 20.9%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전 시장의 경우 '깡'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공직자 역량 높여 1등 도시 건설"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적어도 국내에서 만큼이라도 1등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사진)은 5일 취임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4년여 만에 광주시로 다시 돌아와 광주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행정경험과 혁신마인드를 바탕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민선 3기 이후 광주가 활력이 넘치는 생산도시로 탈바꿈한 것을 보고 광주에 대한

긍지를 가졌다"면서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만족의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첨단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1등 광주를 건설하는데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장성 출신인 임 부시장은 22회 행정고시에 합격, 광주시 자체 행정경험과 혁신마인드를 바탕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민선 3기 이후 광주가 활력이 넘치는 생산도시로 탈바꿈한 것을 보고 광주에 대한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업소용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장기, 사무실에는 센추리가 제일이라~

한전지원금

한전일원에여전
36, 40, 58, 83평형에 한함
대당 최고 152만6천원까지 지원

표명했다.

전윤철 원장은 이어 "저는 41~4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매일 살아왔고 감사원장 직책을 국가사회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할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보궐선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입장이 못된다"고 답변했다.

전윤철 카드가 무산된데 대해 민주당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당 인사들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묻자 "임기 내에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기각했다.

전윤철 원장은 이어 "저는 41~4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매일 살아왔고 감사원장 직책을 국가사회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할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보궐선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입장이 못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민주당 후보자 공모에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